

# ‘먹튀 논란’ 카카오페이... 바닥뚫은 주가에 개미 곡소리

대량 매물에 주주 가치 희석 우려... 빨난 투자자 비판에 대표 사퇴  
스톡옵션 논란에 제도 개선 급물살... 여야 대선 후보도 공약 제시



**<1면에서 계속>** 이 소식이 전해지자 카카오페이가 주가는 1만2500원(6.0%)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회사 사정을 잘 아는 경영진이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는 점을 앞으로 주가 상승이 힘들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후 주가는 최근 장중 한 때 12만6500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이는 52주 최고가(24만8500원) 대비 49.1%가량 떨어진 가격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3일 상장된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 첫날 시초가로 공모가 9만원의 두 배인 18만원을 기록한 이래 한 때 24만8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피200 특별편입 확정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11월25일에는 주가가 3만3500원(18.31%) 급등하기도 했다.

‘먹튀 논란’으로 인해 개미투자자를 비롯한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4일 신원근 대표 내정자는 간담회를 열고 사과 입장과 함께 임기 내 보유 주식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과를 했음에도 비판이 가라앉지 않아 결국 20일 류영준 대표와 장기주 경영기획 부사장, 이진 사업총괄 부사장은 이른 시일 내에 사퇴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주식을 대량 매각한 임원 8명은 최근 카카오 공동체 열라 인먼트센터(CAC)에 사퇴 의사를 표했다. CAC는 류 대표를 포함한 3명의 사의는 받아들여졌지만, 신 대표 내정자를 포함한 5명은 회사에 남아 상황을 수습하고 앞으로 재신임을 받도록 권고했다. 회사에 남은 5명의 경영진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스톡옵션 행사를 얻은 수익 전액을 자사주 매입에 활용하고, 대표로 선임되는 경우 임기 동안에 매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미투자자들은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보다 주가가 30%가량 떨어진 상황이라 오히려 ‘저점매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정치권, 스톡옵션 제도 개선에 팔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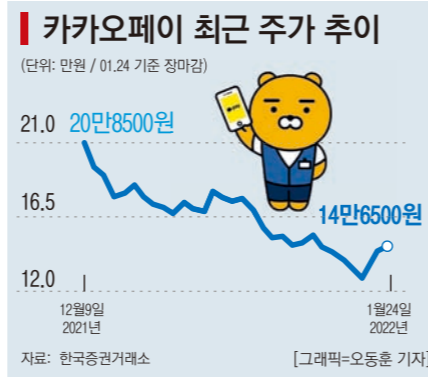
스톡옵션 제도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당시 가격으로 임직원에게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장래에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에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는 것으로 일종의 임직원 포상에 해당한다. 주로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 스톡옵션이 도입된 것은 외환 위기 직전인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상장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세콤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외환 위기 이후 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목돈을 만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톡옵션 붐이 일어났다. 특히 1998년 당시 김정태 주택은행장(이후 초대 국민은행장)이 월급을 1원만 받는 대신 40만주의 스톡옵션을 요구하면서 유명해졌다. 김 행장은 이를 행사해 140억원대의 차익을 올려 이 중 절반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톡옵션은 2009년에 다시 화제가 됐다. 당시 금융당국이 과도한 스톡옵션을 남발했다며 4대 금융지주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에 기존 직원의 임금을 2년 연속 동결하고, 신입직원의 초임을 2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뤄져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결과 금융지주는 스톡옵션 대신 ‘장기성과급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4년간 경쟁사 대비 주가상승률, 영업순이익의 및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달성률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2017년 말부터 성과급의 40%를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단기 성과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받을 경우 눈앞의 실적 쌓기에 급급하게 돼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빅테크와 금융사간의 ‘기술어린 운동장’으로 인해 경쟁 여건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



온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열린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맞춤형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수급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보면 소위 동일 기능에 대한 동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들의 정합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정책적·감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앞서 신년사에서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에 불균형적인 경쟁여건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6일 주요 빅테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정 원장은 빅테크 대표들에게 스톡옵션 부여 조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도 신규 상장기업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사진 위 왼쪽에서 여섯 번째)가 2021년 11월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카카오페이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기념식에 참석해 매매 개시 축하하고 있다. 윤석열(사진 아래 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규정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리사주 보호예수처럼 신규 상장기업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자사주 매각 시 가

격, 일자 등을 사전공시 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 소액주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2021년 12월 27일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이 대량으로 일시

에 매도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 CJ제일제당-중진공, 내일채움공제로 서로 통했다

5년 만기 수혜자 첫 배출 축하  
“고용안정 위한 인재 육성 다짐”

CJ제일제당이 민간기업 최초로 ‘대기업 상생 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수혜자를 배출했다.

CJ제일제당은 25일 이 같이 밝히며 ‘대기업 상생 협력형 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과 협력사 근로자가 5년간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면 만기 시 근로자에게

목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장기 재직을 통해 기업의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CJ제일제당은 2017년 민간기업으로는 가장 먼저 중소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협업체 상생형 공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엔 만기 공제금을 받는 협력사는 (주)노바렉스, (주)우양, (주)허니비, (주)미정, (주)삼양산업 등 다섯 곳이다. 총 7명의 근로자가 평균 2000만원(임금 기준)

의 지원금을 받는다. 매년 대상자를 늘려 현재는 23개사 92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날 서울 중구 동호로 본사에서 ‘상생 협력형 내일채움공제’의 최초 수혜자 배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고용안정과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해 지속가능경영

(ESG)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인 프로그램인 ‘상생펀드’와 ‘직접 자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식품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경쟁력 있는 협력사를 발굴, 육성하는 ‘즐거움동행’ 사업도 펼치고 있다. 또 CJ제일제당은 ‘즐거움동행’을 통해 김치, 두부, 장류, 떡류 등 지역 유망 식품 기업 제품의 전국 유통을 대행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Our Take on a Timeless Design

**BLACK SEA**  
G9027 S-BKT-MB

블랙시(BLACK SEA) 운석 다이얼을 소개합니다.

각각의 다이얼은 스페인에 떨어진 사라고사 운석에서 잘라낸 다음 산 처리되어 여러분이 보는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블랙시(BLACK SEA)의 운석 다이얼은 겹치는 디자인 없이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모습을 선사합니다.

블랙시(BLACK SEA) 운석은 에리스골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나 더 멀리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주의 한 조각을 내 손목 위에’

©WARNINFWALLET 1855-0628 ariesgold.kr